



40년간 전문서 등 24권 저술

이교수는 1958년 2월부터 농사원농업시험장, 충남대학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32년) 등 총 40년간 학교에 재직하면서 1백40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고, 24권의 전문서 및 교

되는 Lipoxygenase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콩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종육성의 기초를 확립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밥밀콩의 우수성도 주요 특성을 학문적으로 규명하여 용도별 품종 육성을 아울러 주도했다. ‘콩박사’로 통하는 이교수는 그간 콩에 대해 연구했던 내용을 총망라한 단행본을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 이 책은 이교수의 제자인 석, 박사 연구원 50여명과 환갑기념으로 제작해 더욱 기억에 남는다고 흐뭇해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부속농장장, 농학과장, 부속농업개발연구소 소장 등 많은 보직을 맡아 대학발전에 헌신함과 동시에 그동안 46명의 석·박사를 지도 배출하고, 7명이 과정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69명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여 후진양성과 학문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많은 농학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농림수산과학협회를 통해 공로가 많은 젊은 농학자에게 상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똑똑한 젊은 농학자들이 무조건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부딪쳐 승부걸기를 희망한다고 전하고, 본인보다는 젊은 농학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고 싶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10년간 한번도 거르지 않고 휴일이면 관악산을 오르내리며 건강을 유지한다는 이교수는 낚시 실력 또한 수준급이라고.

서울대에서 약학박사를 받고 현재 고대 보건전문대 위생과 교수로 재직 중인 부인 裴恩相(62)여사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

前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李 弘 祐 교수
비린내 안나는 콩 개발한 ‘콩박사’

아 업연구와 농업과학의 획기적인 기술개발에 공헌하고 농업발전을 위하여 사회적, 교육적 활동에 헌신적으로 일해온 이홍석(李弘祐, 65) 前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가 제 31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 과학상을 수상했다. “의학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 저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남긴 분도 많은데 저에게 이런 상을 주시니 쑥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농업을 위해 더욱 분발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여서 더욱 열심히 연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이홍석교수는 수상소감을 전했다. “21세기가 되면 세계적인 식량대란이 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 시대를 대비한 국내사정을 감안한다면 식량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될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교수는 기회있을 때마다 식량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과서를 저술했다. 최근 10년간은 66편의 논문과 8권을 저술하는 등 실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초다뿌리혹 형성콩 돌연변이체를 연구개발하고 있는데 기존 장려품종에 비하여 4~5배의 뿌리혹이 착생하게 하고 질소고정능력을 1.7배나 높이는 연구 성과를 거둬들였다. 이를 활용하게 되면 콩재배시에 우리나라의 질소소비량을 연간 2백만kg이나 절약할 수 있어 생산비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하천 및 식수원에 유입되는 환경오염 문제까지 해결해낼 수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날콩을 먹을 경우 설사를 하게 되는데 이는 콩에 들어있는 Trypsin Inhibitor요소 때문이다. 이교수는 연구결과 바로 이 트립신 인히비터를 없앨 수 있는 개량종 콩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냈다.

뿐만 아니다. 콩의 비린내의 원인이



와 압력에 의해서 가스를 발생시켜 플라스틱과 고무에 기포구조를 부여하는 발포제가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것을 국산화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이 동진화성의 시작이었다고 이사장은 설명한다.

반도체용 감광제도 개발

세계 4번째 개발로 국내 정밀화학산업 분야의 기반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포토레지스트 독자기술 개발과 양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수입 대체효과까지 거둬들였다.

뿐만 아니라 이사장은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제2의 반도체라 불리는 액정디스플레이 기판의 제조에서도 필요한 LCD용 포토레지스트 및 박리액(정전기/눈부심 방지처리제)을 개발했다. 최근엔 발포제의 새로운 공정개발로 원가개선을 타진하고 있고, 반도체 재료에 뛰어난 10여년의 연구력을 토대로 KrF/ArF용 포토레지스트, LCD용 배향막, CMF(연마용 실리카액) 등을 개발, 반도체 및 LCD용 화학제품 개발에도 동진화성만의 이성을 지켜나가고 있다. 공장이 1만평이 넘는 시화공장을 비롯, 인천과 발안 등 국내에만 3곳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1만5천평 규모의 인도네시아 현지공장도 1년내 풀가동하고 있다.

“정말 30년간 옆도 안보고 일만 했습니다. 또한 연구하고 기술개발할 때는 힘도 들었지만 회사가 매년 성장했고 제조업을 하면서 많은 보람도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일해온 결과에 대해 알아주고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훌륭한 상도 주시니 정말 기쁩니다”라고 솔직하게 소감을 말한 이사장은 반도체재료 분야에는 아직도 우리가 국산 개발해야 할 분야가 많으며 앞으로 독자기술할 품목이 빼곡이 적혀 있는 리스트를 보여주었다.

부인 長明玉(62)여사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57

동진화성공업(주)
李 富 燮 대표이사
발포제 개발 ... 세계시장 35% 장악

국 내 최초로 발포제를 개발, 30년이 넘도록 발포제 제조업에 매달려온 동진화성의 이부섭(李富燮, 61) 사장이 제31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 기술상부문을 수상했다. 14대째 서대문구 연희동에 살고있을 정도로 한 곳에 뿌리를 내리면 끝을 보고 마는 고집과 근성으로 이사장은 발포제 개발에 매달렸다. 그 결과 동진화성 발포제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무려 35%.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의 바이엘사와 미국의 유니로알 정도가 겨우 명맥을 유지할 정도다.

서울대 화공과와 동대학원을 마친 이사장은 겨우 들어간 직장에서 첫 월급으로 받아온 돈이 단돈 5천원.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뭔가 내 사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사업거리를 찾던중 플라스틱과 고무에 첨가되어 일정한 온도

1980년대부터는 국내의 또다른 불모지인 반도체재료 분야에 투신했다. 동진화성은 반도체의 핵심재료를 하나하나 국산화시킴으로써 국내 반도체업체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이중 하나가 반도체봉지제(EMC, EPOXY MOLDING COMPOUND)개발이다. EMC는 반도체칩을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으로 반도체 칩만큼이나 중요한 부품이다. 동진화성에서 개발하기 전까지 역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이었다.

또 하나 동진화성의 기술력이 탄생시킨 제품은 반도체용 감광제인 Photoresist의 국내개발이다. 반도체 미세회로선폭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고분자화합물인 감광성수지 포토레지스트의 개발은 독일, 미국, 일본에 이어



가 크게 발달할 것이라는 예감으로 시작한 이 월간지는 20년 6개월동안 발행되었고 이 잡지의 발행인으로 있으면서 과학기술분야의 도서를 발간했다. 이중 「전기용어대사전」은 꼬박 4년이 걸려 완성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정사장의 작품이기도 하다.

인들의 결합체인 과학기술도서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과학기술도서인을 격려하고 양성하기 위해 '과학기술도서상'을 제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인 기금 2천5백만원을 대한출판문화협회에 기탁 관리하게 하여 매년 우수 저술인, 역자, 출판인을 선정 표창하게 했다. 1997년에는 정사장 본인이 제15회 과학기술도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책을 만드는데는 저자도 중요하지만 책을 홍보해주는 대행기관도 저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정사장은 일례로 미국의 칼 세이건이 저술한 「코스모스」는 책도 훌륭하지만 여러 언론과 기관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기에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하루에도 수십권 수백권씩 쏟아져 나오는 출판업계의 현실 속에서 과학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비하다. 그나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과학도서 출판사는 서점에서조차 좋은 위치를 선점하지 못하고 구석에 꽂혀있을 정도니 어떻게 과학도서가 홍보될 수 있겠냐고 토로한다. 무엇보다도 출판인들의 고유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 좋은 과학양서를 구입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피력한다. 이는 도서관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불가능 하지만 도서관 추천도서를 통한 막대한 홍보투자로 제목이 알려진 저질의 책 때문에 양서에 먼지가 쌓이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접 저술활동과 외국과학도서의 번역을 통하여 과학의 대중화와 과학풍토조성에 40년간 공헌한 정사장은 부인 李鐘瓊(62)여사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㉟

도서출판 겸지사 鄭海相 대표 40년간 과학기술도서 2백여권 발간

제 31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 진흥상 부문은 월간지와 청소년 교양과학도서 40년을 헌신적으로 몸바쳐온 겸지사 대표 정해상(鄭海相, 69)사장에게 돌아갔다. “뒤돌아보면 40년이란 세월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배가 고프다는 출판업계에 몸담아오면서 과학자가 되겠다는 어린이들의 꿈을 최소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이 출판하는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제 책을 읽는 사람중에 반드시 훌륭한 과학자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로 출판계를 지켰습니다.”

월간 「전기기술」 20년간 발행

정사장이 출판계에 뛰어든 것은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군을 제대한 후 처음 시작한 것이 월간 「전기기술」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력사

1972년부터 현재까지 25년간 도서출판 겸지사를 경영하면서 총 2백여종의 과학기술도서를 출판하였다.

특히 최근 10년간은 청소년 과학교양도서 발행에만 전념하여 95종에 달하는 과학단행본 및 39종에 이르는 청소년 추천도서, 문화체육부선정 추천도서, 과학문화재단선정 추천도서 및 우수 학술도서를 발행해왔다. 이중 「자연의 탐구자들」은 정사장이 직접 저술한 책으로 이외에도 5권을 직접 저술하였고 「원적외선공학」 등 5권의 역사가 있다. 또한 정도만 있으며 도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과학사중에서 숨겨진 비화를 다룬 「배신의 과학자」와 같은 도서도 발간후 많은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83년에는 「자연과학문고」 전 20권을, 84년에는 「창작동화집」 12권을 발행했다. 뿐만 아니라 정사장은 1980년부터 1984년까지 과학기술도서 출판